

해외재난 위기사 구호지원활동의 성공요인에 관한 연구

— 한국군 아이티 재건지원단 파병사례를 중심으로 —

양철호*, 박효선**

최근에 아이티, 일본, 터키, 중국의 대지진은 많은 사상자와 더불어 엄청난 재산 피해를 발생시켜, 국제사회에서는 이들 국가에 구조팀을 파병하고 의료품, 식량 같은 구호물자를 지원 하는 등 피해복구 및 재건을 위한 공동의 노력을 전개하였다. 대한민국에서도 아이티 대지진시 UN 안보리 결의안에 따라 재건지원단(단비부대)을 파병하여 도로·건물 피해복구, 의료지원, 급수지원 등 공공시설 복구 및 주민 재건을 적극 지원하였다. 이 연구는 아이티 대지진시 재건지원단을 파병하여 피해복구 및 재건지원을 한 사례를 분석 성공요인을 도출하여 향후 대규모 국제적 재해·재난으로 인한 해외파병 정책업무에 기여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2010년 2월 6일부터 12월 31일까지 파병된 아이티 재건지원단 1,2진의 활동사례를 재건지원단 해외파병 성공요인 분석 틀(METT+TC)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아이티 재건지원단은 대한민국 최초 외국의 대규모 재해·재난지역에 대한 국제적 파병부대의 현지 상황과 특성에 맞는 통합적 지원이었다. 둘째는 현지 여건과 주민들의 성향을 고려한 효과적인 민사작전의 전개였다. 셋째는 현지에 파병되어온 외국군과의 다양한 교류활동과 협력이었다. 그러나 파병 후 조 기 임무수행을 위한 사전 충분한 준비, 현지의 특성에 맞는 인력과 장비의 편성 등의 보완이 요구되었다. 따라서 아이티 재건지원단의 사례를 토대로 추가 발전시킨다면, 외국의 대규모 재해·재난 위기 발생시 성공적인 임무수행이 가능할 것이라 판단된다.

주제어: 대지진, 재건지원단, 해외재난 구호지원 활동, 해외파병, 민사작전

1. 서론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오늘날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요인은 전쟁뿐만 아니라 테러, 중동 및 아프리카 지역의 정세불안, 주요 해상통로에서의 해적행위, 사이버 공격과 대규모 재해·재난 등 다양해지고 있다.

* 제1저자, ** 교신저자.

특히 대규모 재해·재난에 의한 피해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여 수십만에 이르는 사상자 및 이재민을 발생시키고 재산피해도 엄청난 세계 및 각국의 경제에 치명적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각국은 재해·재난에 대한 예방과 준비는 물론 이를 대응하고 복구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재해·재난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미리 예방하여 인적·물적 피해를 최소화 하는 것이지만, 최근에는 기상이변 때문에 지진, 쓰나미 등의 대규모 재난을 예측할 수 없어 그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그러므로 세계 각국은 예방은 물론 재난발생시 효과적인 대응과 신속한 복구를 위해 중앙 및 지방 정부와 연계하여 민·관·군·경 통합융합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고 있는 것이다.

아울러 국제적인 협력을 강화하고 효과적인 대응과 피해복구를 위한 지원활동도 적극 실시하고 있다. 특히 2010년에 발생한 아이티 대지진에 국제적인 협조와 지원은 대표적 사례라고 볼 수 있다. 2010년 1월21일 16시 53분 9초에 아이티의 수도 포르토프랭스 서쪽 25km지점에서 진도 7.0의 강진이 발생하여 25만 여명의 사망자가 발생하고, 300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되었다. 이러한 재난에 대해 UN에서는 아이티의 안정을 위해 파병된 기존의 부대 외에 재건 및 의료지원을 위한 세계 각국의 인력 및 장비의 파병을 긴급하게 요청하였다. 이에 우리나라는 UN안보리 결의안 1908호(10,1,19)에 의거 파병을 결의하게 되었고, 공병위주로 아이티 재건지원단을 편성하여 2010년 2월 27일에 출국하여 3월 7일부터 임무를 수행하였다.

아이티 재건지원단(단비부대)은 UN 아이티 임무단(MINUSTAH)²⁾으로부터 주어진 재건지원 활동과 의료지원 및 민사지원 작전을 실시하여, 한국군 공병대가 주둔한 지역에서는 단비부대를 ‘축복’이라 부를 정도로 성공적인 활동을 하였다. 이러한 아이티 재건지원단은 타 국가의 재해·재난으로 피해복구 및 재건을 위한 한국군 최초의 파병으로서 역사적 의미를 갖는다. 따라서 이에 관한 사례연구는 장차 해외재난 위기에 대비한 국가적 정책결정과 준비에 매우 중요한 자료와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본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아이티 재건지원단의 해외파병 준비과정과 임무수행과정의 성공요인을 분석하여 그 결과를 정책제언 함으로써 향후 대규모 국제적 재해·재난으로 인한 해외파병 정책업무에 기여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타 국가의 재해·재난으로 피해복구 및 재건을 위한 해외파병 결정과정 및 지원경과를 살펴보고 둘째, 재건지원단 해외파병 준비과정에서 나타난 타 파병지역과의 차이점은 무엇이며 셋째, 현지 임무수행 내용과 재건지원단의 성공요인은 무엇인가를 도출하고자 한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연구는 2010년 2월 27일부터 파병된 아이티 재건지원단(단비부대)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1진과 2진의 활동내용을 중심으로 하였다. 연구방법은 문헌리뷰와 사례연구

1) UN 안보리 결의안 1908호는 아이티 대지진으로 인한 유엔 결의로써 군인 약 3,000명, 경찰 1,500여명을 증원하여 아이티의 피해복구 및 재건을 지원하겠다는 결의이다.

2) UN 아이티임무단(MINUSTAH: United Nations Stabilization Mission in Haiti)은 UN안보리 결의안 1542호(2004. 4. 30)에 의거 창설, UN안보리에 의해 2004년 인가된 다국적군(MIF)의 임무를 인수하고 아이티의 치안 및 안정화 임무를 수행하였다.

를 채택하였다. 사례연구는 한정된 사례를 심층적으로 검토함으로써 연구 대상에 대한 심층적 분석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제한적 현상을 연구하기 때문에 일반화에 무리가 있다는 단점도 있다. 하지만 설명적 사례연구 방법을 추가한다면 정확한 한계점을 보완이 가능하다(권해수, 1992: 32). 본 연구는 기존자료들을 검토하여 객관적인 사실들을 수집 및 분석하고, 재건지원단 해외 파병부대 성공 요인 분석의 틀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기존자료로는 통계자료, 회의록, 정부문서, 보도자료, 협약서 및 증언 등의 자료를 활용되었다.

II. 이론적 배경

1. 대규모 재해·재난에 대한 개념

일반적으로 인간의 사회적 생활과 인명, 재산이 이상 자연현상 등과 같은 외력에 의해 피해를 받았을 경우 이를 재해라 하며, 재해를 유발시키는 원인을 재난이라고 한다. 다시 말하면 인간의 생존과 재산의 보존이 불가능할 정도로 생활 질서를 위협받은 상태를 초래 시키는 사건 또는 현상을 재난이라 하며, 이로 인한 피해를 재해라 한다. 따라서 재해·재난은 크게 발생 원인을 중심으로 천재인 자연현상에 의한 재해와 인위적인 원인에 의해 발생하는 인위재해로 분류할 수 있으며, 그 외에도 몇 가지 기준에 의해 분류 할 수 있다. 첫째, 재해 발생 원인에 의한 분류, 둘째, 발생 과정의 시간적 차이에 의한 분류, 셋째, 발생 장소에 의한 분류, 넷째, 재해대상에 의한 분류, 다섯째, 피해의 직·간접성에 의한 분류 등으로 나눌 수 있다(안정행정부, 2012).

이번 연구는 아이티에서 발생한 대지진을 복구 및 재건하기 위한 파병관련 목적으로써, 재해발생 원인과 재해발생 과정의 시간적 차이에 의한 재해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재해는 발생 원인에 따라 자연재해(천재)와 인위재해(인재)로 나눌 수 있다. 자연재해는 자연현상에 기인한 것을 말하는데 그 원인과 결과의 다양성으로 인하여 여러 가지로 나눌 수 있으며 자연재해를 크게 분류하면 기상 요인에 의해 발생하는 기상재해와 지반의 운동으로 발생하는 지진 및 화산 활동으로 인한 지질 재해로 나눌 수 있다. 지질재해는 직접적인 피해를 발생시키기도 하면서, 간접적으로 기상이변을 초래하여 기상재해도 발생시킨다. 자연재해는 인위적으로 완전히 근절시킬 수 없는 불가역적인 요소를 지니고 있다. 그러나 재해발생의 사전예측에 따른 예방조치, 재해발생시의 신속한 복구 등으로 재해를 막거나 최소화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대부분의 자연재해는 이상 기상현상이 원인 되어서 발생하는 기상재해에 해당한다. 따라서 재해방지 대책이라는 측면에서 인위재해는 근본적으로 발생자체를 줄이는 대책이 가능하지만, 자연재해는 발생자체를 줄이기에 현재의 과학 기술 수준으로도 어렵기 때문에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를 최대한 경감시키는 방향으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둘째, 재해발생 과정의 시간적 차이에 따라 급성재해와 만성재해로 나누고 있다(안정행정부, 2012). 급성재해란 그 발생과 진행이 상대적으로 빨리 이루어지는 재해로서 폭풍, 홍수, 산불, 해일, 산사태, 위험물질 누출, 폭발 등을 들 수 있으며, 만성재해란 그 진행이 느린 재해로서 전염병, 병충해 등의 농작물 피해와 환경과피 등이 있다. 이 분류의 의미는 재해에 관한 정보의 전달과정과 대응과정의 차이에서 찾을 수 있다. 만성재해는 상대적으로 재해의 정보전달과 대응에 시간적 여유가 많으므로 대응과 피해복구의 사전준비가 크게 요구되지 않으며, 전국적인 또는 전 세계적인 범위에서의 자료의 전달과 교환을 통해 재해방지대책을 수립할 수 있다. 급성 재해는 만성재해에 비하여 급격하고 또는 국지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전대비 및 재해 발생 시 신속한 대처가 필요하다.

2. 재해·재난의 관리 체계

1) 국내 재해·재난 관리 체계

위기관리는 ‘군사 및 비군사 분야 등의 위기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거나 사후에도 그 위기를 최소화시키는 활동(정찬권, 2012: 272)’, 또는 ‘양국간 또는 다수 국가간의 국가이익이 상충되는 곳에서 발생하는 갈등과 분쟁상태가 전쟁으로 돌입하느냐 아니면 평화회복으로 향하느냐를 결정하는 분수령으로 어떤 사태가 급변시에 분쟁 당사국들이 전쟁으로 확대를 방지하고 이를 수습하기 위하여 위기의 통제와 확대방지에 노력하는 모든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조영갑, 2000: 38).

우리나라에서 이러한 위기관리를 위한 방재기구의 출발은 1963년 7월10일 건설부 수자원국에 방재과가 처음으로 설치된 것이 효시이다. 그후 1977년 12월30일에는 수자원국에 방재계획관을 두기도 했다. 1987년 12월15일에는 방재계획관 밑에 방재시설과와 방재계획과로 확대하게 된다. 내무부로 이관되어 민방위본부 민방위국에 방재계획관을 두고 기획과, 편성운영과, 교육훈련과, 방재과로 개편하게 된다. 김영삼 정권 이후 민방위본부 아래에 민방위국, 소방국, 방재계획관으로 분리하고, 방재계획관 산하에는 방재담당관과 재해복구 담당관을 두게 된다. 그러다가 다시 민방위본부 아래 방재국을 신설하여 민방위국, 소방국, 방재국 등 3개의 국을 두고, 방재국에는 방재계획과, 재해대책과, 재해복구과를 두어서 소위 방재를 예방과 복구차원으로 구분하여 대응하게 하였다(안정행정부, 2012).

그런데 고오베 대지진과 삼풍백화점 붕괴 이후 재난관리국을 신설하여 민방위국, 소방국, 방재국에 이어 4개의 국으로 확대 개편하였다.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나라에 있어서 최초의 현대적 의미에서의 방재조직의 개편이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후 다시 IMF의 영향으로 제1차·제2차 정부조직을 축소 개편함에 따라서 민방위재난관리국과 방재국을 통합하여 방재국의 업무는 민방위국장의 지휘 하에 방재관이 수행토록 했다. 따라서 총괄적인 위기관리업무는 행정자치부의 민방위재난통제본부 아래 민방위재난관리국과 방재관실, 소방국 등 3개의 국이 있으며, 다시 방재관실 밑에는 방재계획담당관실, 재해대책담당관실, 방재기준담당관실로 조직되어 있다(안정행정부, 2012).

우리나라는 자연재해와 인위재난을 법적으로도 엄격하게 분리하였고, 제도적으로도 업무를 분리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요즘은 자연재해도 잘못하면 인제가 되고, 인제 또한 관리를 잘못하면 천재가 되는 구분이 모호한 혼재의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 그러다보니 법적구분이나 업무분리가 쉽지 않고, 또한 부처이기주의 등으로 위기관리 상황 하에서는 상당히 비효율적이라 할 수 있다. 미국이나 일본의 경우는 하나의 법이나 조직으로 통합해서 재해나 재난발생 시에는 신속하게 대응하도록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2) UN의 재해·재난 관리 체계

UN의 재해·재난 관리 체계는 크게 자연재해 감소를 위한 국제전략기구(ISDR)와 UN 평화유지 활동(PKO: Peace Keeping Operation)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국제전략기구(ISDR)는 1989년 12월 22일 유엔총회에서 1990년대를 자연재해 경감을 위한 10개년 계획기간으로 지정 하였으며, 이를 위해 1990년 1월 자연재해 경감을 위한 10개년계획 사무국(IDNDR: International Decade For Natural Disaster Reduction) 이 설립되었던 것을 1999년 재해감소를 위한 국제 전략기구(UNISDR: United Nations International Strategy for Disaster Reduction)로 개칭하였다. 이 기구는 지진·쓰나미·홍수·산사태·화산폭발·가뭄 등 자연재해로 인한 인명피해와 재산손괴 및 사회적·경제적 혼란을 경감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따라서 재난에 대한 체계적인 접근 방법인 재해위험감소(DRR: Disaster Risk Reduction)를 도입, DRR에 대한 투자를 증진시키며, 재해에 대비하여 도시계획을 하는 등의 활동을 주로 하고 있다. 한편 2000년에는 재해 경감을 위한 유엔 신탁자금이 자발적인 기부를 통해 조성되었고, 우리나라를 포함한 9개국에서 운영 자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2년마다 재해 경감에 관한 국제 평가 보고서를 발표하고 있다(국방대학교, 2012: 9-15).

둘째, UN 평화유지 활동(PKO: Peace Keeping Operation)은 1948년 UN안전보장 이사회가 중동지역에 UN 예루살렘 정전 감시단을 창설해 비무장의 군 옵서버(Military Observer) 투입을 결의하면서 부터 시작 되었다(UN 안보리 결의안 제50호, 1948.5.29). 당시의 임무는 이스라엘과 인접 아랍국들 사이의 휴전협정(Armistice Agreement)을 감시 및 보고 하는 것이었다.UN은1948년부터 2013년 까지 65년간 총 67개의 PKO 임무단을 창설 하였으며, 전 세계 120여 개국으로부터 수십만 명의 군인, 수만 명의 경찰과 민간인이 PKO에 참여해 오고 있으며, 그 규모는 계속 증가하여 현재 17개 임무단에서 12만여 명이 참가 하고 있다. PKO는 분쟁중인 국가에 평화정책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탄생하였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그 역할이 바뀌고 있다. 냉전시대 PKO는 주로 정전과 안정을 도모하는데 집중하였으나, 냉전종식 이후에는 정전 감시 업무에서 다차원적 임무로 그 기능이 확장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오늘날에는 정부기능유지로부터 인권, 안보, 인도적지원, 무장해제, 동원해제, 재통합 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되었으며, UN안보리 결의안 제1542호에 의거 UN아이티 안정화 임무단(MINUSTAH)이 창설되어 활동하고 있다. 아이티 대지진이 발생했을 시는 UN 안보리에서 대응 및

지원을 결의하여 구조, 피해복구, 재건지원 등의 목적으로 국제적 지원을 요청하여 대한민국을 비롯한 15개국 8,500여명이 참가하였다(국방대학교, 2012: 279-282).

3. 해외재난 위기사 구호지원활동 성공요인 분석의 틀

해외재난 구호지원활동은 재난 피해자들에 대한 범정부적 지원결정을 기초로 하여 군이 수행하는 인도적 지원활동이다. 이를 위한 해외파병은 UN의 평화유지활동, 다국적 평화활동 및 해외재난 구호활동에 참여하는 부대 및 개인을 해외로 파병하는 것으로, 해외파병 대상에는 국내에 주둔하면서 파병임무를 수행하는 항공기와 함정 근무요원을 포함하고 있다(합동참모본부, 2010: 469).

한국군 해외파병은 주로 유엔평화유지군의 일환으로 진행되었다. 이에 따라 1993년부터 1994년까지 소말리아에, 1995년부터 1996년에는 앙골라에 공병부대가 파병되어 지원임무를 수행하였으며, 1994년에는 서부 사하라에 의료지원단이 파병되었다. 이들이 모두 비전투병력이었던 것에 반해, 1999년 동티모르에는 400여 명의 전투병이 파병돼 치안유지와 대민구호 활동을 하였다. 이는 베트남전 이후 최초의 전투병 해외파병으로서 그 정당성을 둘러싸고 사회적으로 큰 논쟁이 벌어지기도 하였다(김열수, 2006: 142-145).

해외파병 활동에 관한 연구는 주로 해외파병 정책결정에 관한 연구(김열수, 2006; 정도생, 2006; 이윤주, 2009; 김장홍, 2010; 김정두, 2011; 조현행, 2013)와 해외파병 부대원의 스트레스 및 정신건강에 관한 연구(정효현, 2003; 이연미, 2010; 한태근, 2010; 한세진, 2013; 우정희, 2012), 해외파병부대의 민군작전에 관한 연구(최우, 2008; 이영석, 2011; 계운봉, 2012) 등이 대부분이다. 그러나 해외재난 구호활동 파병에 관한 연구는 해외파병 활동 및 발전방향(노충섭, 2011)과 평화유지군의 신속파병 발전방향 연구(노정기, 2012)에서 일부 다루기는 하였으나, 경과 및 성과에 관한 연구는 전무한 상태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가장 최근에 실시한 해외재난 구호활동 파병사례인 아이티 재건지원단의 성과를 분석 평가하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국방정책의 평가는 국방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국방정책의 타당성 여부나 효과성을 객관적·체계적·경험적으로 분석하여 평가하는 것이다(조영갑, 2011: 161). 즉 국방정책평가는 정책의 목표와 문제규명에서 내세웠던 필요성, 가치성, 효과성 등을 실제로 얼마나 충족시켰는가를 판단하는 행위로서 국방정책의 집행된 결과를 토대로 분석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정책평가는 목표의 달성도뿐만 아니라 정책의 성공과 실패의 원인을 제시해 주고, 효과성 증진을 위한 대안 마련과 수단을 제공하기도 한다.

국방정책평가는 평가의 목적 및 내용 등에 따라 여러 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유영욱, 2005: 288-289). 첫째, 사전평가·과정평가·사후평가의 모형이다. 사전평가는 합리적인 정책결정과 정책집행 전에 정책의 타당성, 가능성, 자원의 배분을 위한 객관적인 정보를 얻는 평가이다. 또한 과정평가는 집행과정의 효과성과 관리의 능률성을 평가하는 것이며, 사후평가는 정책집행이 종료된 후에 그

실패여부를 확인하고 다음 정책결정을 위한 환류를 목적으로 한다. 둘째, 내부평가·외부평가의 모형으로 내부평가는 정책의 결과와 집행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이나 소속한 조직의 다른 구성원이 평가를 담당하며, 외부평가는 외부기관이나 전문가들에 의해 수행된다. 셋째, 총괄평가·과정평가 모형이다. 총괄평가는 국방정책이 집행되고 난 후에 정책목표 달성여부를 효과성·능률성·공평성 등으로 평가하는 것이다. 특히 효과성 측정은 1950년 랜드연구소가 군사전략과 무기체계의 대안을 평가하는 과정에서 개발되었다(김해동 외, 2005: 156-160). 과정평가는 정책집행 활동과정을 분석하여 효율적인 집행전략을 수립하거나, 정책의 수정 및 변경 결정에 도움을 주기 위한 평가이다.

정책평가의 기준요소로는 정책집행에 맞추어 정책목표의 달성, 효율성, 지지자의 만족, 수혜자의 대응성, 체제유지 등이 있다(Nakamura & Smallwood, 1980). 이러한 정책평가는 정책의 성취도와 능률성을 측정하는 것 외에도 목표달성이 그 목표의 대상이 되는 집단이나 개인에 대해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를 측정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내재적·대외적 영향요소에 의해 규범적 평가가 혼란에 빠질 수도 있다(조영갑, 2011: 171).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해외제난 구호활동 파병 정책이 국방정책의 일부이기도 하지만 군사작전 수행의 형태로 보고, 군사작전의 의사결정과 평가의 모델인 METT + TC를 활용하여 평가하고자 한다.

METT + TC는 Mission, Enemy, Terrain & Weather, Troops + Time Available, Civil Affairs의 약자로서 임무, 적, 지형, 가용부대, 가용시간 및 민간요소를 말한다. METT + TC 요소는 최초 미군에서 정보기술이 발달되고 전장 환경이 복잡해짐에 따라 많은 정보를 분류하여 분석을 위한 체계적 도구의 필요성을 인식하여 만들게 되었다(미군 야전교범 6-0, 임무형지휘: B-2: 2). 이렇게 만들어진 METT+TC 요소로 다양한 정보를 모아 체계적으로 분류함으로써 지휘관 및 참모는 보다 쉽게 상황을 이해하고, 분석·평가 할 수 있게 되었다.

우리 군에서도 1996년부터 작전요무령에 METT+T를 최초로 반영하였으며, 1999년 지상작전에 METT+TC를 발전시키게 되었다. 민간요소가 반영된 이유는 현대전은 총력적의 개념으로서 민간요소(주민, 언론, 기반시설 등)가 작전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함이 새롭게 인식되어 반영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METT+TC 요소는 복잡한 전장상황을 분석할 수 있도록 작전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함으로써 유용한 도구로 활용되고 있다. 특히 이러한 분석의 틀은 계획 및 준비단계 뿐만 아니라 작전 실시단계에도 그 중요성이 인식되어 모든 군사작전에도 활용되고 있다.

METT+TC의 일반적인 교리적 해석과 이를 적용하기 위한 포함요소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임무(M)는 전투를 실시하는데 자신이 맡은 일로서 상급부대에서 부여한 과업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정립된다. 통상 전술체대의 임무는 상급지휘관의 의도를 고려하여 상급부대의 작전목적 달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정립하여야 한다. 이를 기초로 지휘관은 지속적으로 상황판단을 실시하며, 적시 적절한 결심으로 모든 계획을 수립하고 명령하달하며 그 실행을 감독한다. 따라서 임무에 포함요소는 '누가, 어디서, 무엇을, 왜' 요소를 포함한 개인 및 조직단위 또는 부대에 부여된 주요 과업이다.

둘째, 적 상황(E)은 내가 상대할 적의 실체를 정확히 분석하고, 판단하고, 적 지휘관이 어떠한 의도로 어떠한 방책을 채택할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한 대응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이다. 따라서 적 지휘관도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으며 논리적인 분석과 판단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고 적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있어서는 안 된다. 상급지휘관일수록 단순한 적의 배치, 구성, 능력 등 적 상황보다는 그러한 상황을 적 지휘관 입장에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의 의도를 분석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그러나 아이티 재건지원단의 임무와 같이 전투의 대상으로 적보다는 극복해야 할 지역과 상황이라는 차원에서 본 연구에서는 아이티의 내정과 치안 등 구호지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를 포함하였다.

셋째, 지형 및 기상(T)은 전투 시 극복해야 할 마찰의 요인이면서, 지형 및 기상의 이점을 활용시 전투력 증가의 요인이 되므로 전술체대 지휘관 및 참모는 지형과 기상이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반영한 계획수립과 전투준비 및 실시가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작전지역 분석은 관측과 사계, 은폐 및 엄폐, 장애물, 중요지형지물, 접근로 등을 기준으로 실시하나, 상·하 계대별 부대 성격에 따라 분석 관점과 중요도는 다를 수 있다. 특히 전술체대일수록 사계절의 변화에 따른 각각의 계절에 미치는 본질적인 특성과 하천 등의 지형이 미치는 전투효과를 이해하고 전투수행 방법을 개발해야 한다. 따라서 지형 및 기상의 포함요소는 파병부대의 활동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지형 및 기상 관련 전 요소를 포함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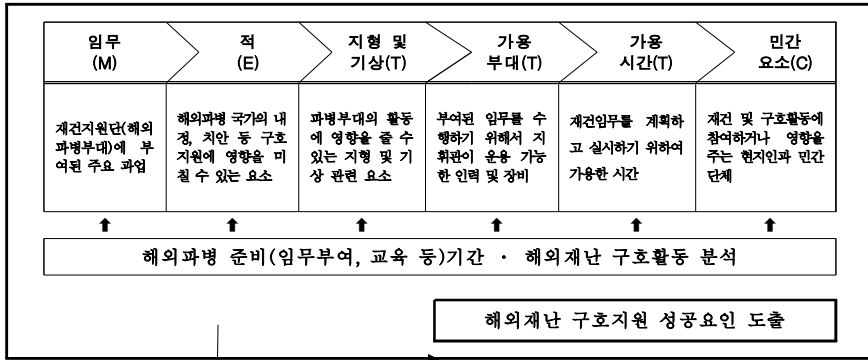
넷째, 가용부대(T)는 임무를 달성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편제상 부대와 배속 및 작전통제부대 등 모든 전투력을 포함하며, 유형전투력과 무형전투력이 결합된 총체적인 전투역량을 말한다. 임무를 부여받은 지휘관 및 참모는 전투를 계획, 준비, 실시함에 있어 자신의 가용부대 능력을 평가하고 가능한 능력범위 내에서 과업을 수행한다. 항상 가용부대의 수적 우세가 승리를 보장하지 않는다. 상대하는 적보다 상대적 우세를 달성함으로써 승리를 보장할 수 있는 것이다. 특히 재건지원단의 경우는 부여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지휘관이 운용 가능한 인력 및 장비가 중요하므로 이를 포함하였다.

다섯째, 가용시간(T)은 지휘관 및 참모가 전투를 계획하고 준비, 실시할 때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가용시간이 충분할 경우 정밀계획수립 및 준비가 가능하나 가용시간이 부족할 경우는 준비명령, 단편명령에 의한 임무형 지휘가 불가피한 경우가 자주 도래할 수 있다. 현대전과 같이 전투속도가 점점 빨라지는 상황에서 가용시간이 부족하면 결심이 지연되고 적에게 주도권을 빼앗기는 결과를 초래한다. 특히 재해제난 구호지원은 단시간 내에 조치해야하는 긴급한 상황이므로 재건임무를 계획하고 실시하기 위한 가용한 시간이다.

여섯째, 민간요소(C)는 작전지역 내 민간인, 정부 및 민간기관과의 상호지원 등에 관련된 요소이다. 전장에서 민간요소는 인명이 중시되고 향상되는 것에 비례하여 그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자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대한 보호, 인간 기본권에 대한 보장요구는 상대하는 적국의 적성 주민에게 까지도 그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요구받고 있는 것이다. 그렇지 않을 경우 전쟁에 대한 혐오와 인간 경시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언론매체를 통해 국민에게 전달될 때 전쟁 및 전투의지에 영향을 미치고 전투

승패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전장에서 지휘관 및 참모는 민간요소를 중요 고려사항으로 간주하여 민간인의 인권과 각종 권리를 보장하는 차원에서 전투를 계획하고 준비 및 실시해야 한다. 재해재난에 처한 민간인의 경우도 그들의 권리를 보장하고 적절한 통제대책과 더불어 언론매체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해야 한다. 아이티 재건지원단의 민간요소는 재건 및 구호활동에 참여하거나 영향을 주는 현지인과 민간단체를 포함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METT + TC 분석모형은 아이티 재건지원단의 해외재난 복구지원 활동 계획 및 준비단계와 현지 활동결과 단계를 분석·평가의 도구로 적합하다고 보여진다. 그러나 적 관련 요소(Enemy)는 아이티 파병이 구호지원활동을 위한 것이므로, 현지 파병부대의 임무수행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현지의 내정 및 치안 등의 상황으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다. 이를 토대로 METT+TC를 기초로 한 해외 파병부대 성공요인 분석의 틀을 <그림 1>과 같이 설정하였다.



<그림 1> 해외 파병부대 성공요인 분석의 틀(METT+TC)

III. 해외재난 구호지원 활동결과 분석

1. METT+TC 분석

1) 임무(M: Mission)

임무(M)는 재건지원단(해외파병부대)에 부여된 주요 과업이다. UN아이티 안정화 임무단(MINUSTAH)은 아이티의 불안정한 내정으로 인한 아이티인 보호와 안정화를 위해 2004년 4월 창설되어 임무를 수행해 왔으며 2010년 1월 12일 지진으로 인한 국토황폐화 복구지원과 정부기능 확대지

원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다. 아이티의 내정은 아리스티드가 1994년 대통령에 복귀하여 재임하고 퇴임 이후에도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국민들의 반발로 반정부 시위와 폭력사태가 확산되었다. 이로 인하여 2004년 4월 UN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1524호에 의해 아이티 안정화군(UN Stabilization Mission in Haiti)이 창설되었으며, 2004년 6월 1일부터 기존의 다국적군(MIF, Multinational Interim Force)로부터 치안유지임무를 이양 받아 아이티 치안 및 안정 확보, 정치정상화, 국민화합 및 인권증진 지원 등의 임무를 수행하게 되었다(유엔 아이티안정화지원단에 대한 사무총장 보고서, 2010. 9).

그러나 2010년 1월 발생한 지진으로 인해 기존의 임무에 추가하여 아이티 정부의 경찰병력의 교육과 지원, 범법단체 및 이들의 불법 무기거래에 따른 위협 요소의 제거 등 안정화 지원과 Preval 대통령의 임기 종료 및 상하 양원의 해산에 따른 선거지원 등의 임무를 수행하도록 되었다. 또한 취약한 정부기능으로 인해 야기된 치안의 미흡으로 납치, 강절도 및 강간 등의 강력범죄와 여성, 아동의 보호 및 지진으로 인한 난민들의 취약한 인권상황의 개선에 대한 임무를 병행하게 되었다.

따라서 아이티재건지원단의 임무는 “아이티의 레오간 일대로 전개하여 MINUSTAH의 작전 통제를 받으면서 임무를 수행한다(국방부 지령 10-2호, 2010).”는 것이다. 따라서 지령에 명시된 임무로부터 3가지의 세부임무를 추출하였다. 첫째는 아이티재건지원을 위한 공병지원, 둘째는 현지인 대상 의료지원, 셋째는 인도주의 활동 지원이다. 특히 공병지원은 레오간과 작크멜에 이르는 주요도로 복구, 레오간 시내 학교·병원·고아원·도로 잔해제거, 홍수 피해 예방을 위한 하천준설, 심장개발 및 급수지원, NGO 단체 부지정리 등으로써 MINUSTAH로부터 구체적인 임무를 수령하였다(아이티 재건지원단 Tasking Order 1: 임무, 2010. 3. 7).

2) 적 상황(E: Enemy)

적 관련 요소(Enemy)는 해외파병부대의 임무수행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현지의 내정 및 치안 등의 구호지원 활동에 미치는 영향요소이다. 아이티는 1804년 1월 1일 프랑스로부터 독립을 했으며, 중남미지역 최초의 독립국으로 중남미 각국들의 독립운동을 지원하고 독립투사와 정치적 망명자들의 피난처가 되었다. 그러나 1957년 9월 대통령으로 선출된 뒤발리에가 의회를 해산 했으며 1964년 6월에는 종신대통령이 되어 공포정치를 실시했다. 1971년 그가 죽자 ‘베이비 독’이라고 불리는 그의 아들 장 클로드 뒤발리에가 계승했다. 뒤발리에 가문의 30여년에 걸친 독재기간에 아이티의 경제적 불균형, 정치적 탄압, 타락한 정치관행 등이 지속되면서 결국 반정부 시위로 이 독재체제는 종말을 맞게 된다. 1990년 아이티 역사상 최초의 자유선거에서 해방신학자이며 가톨릭 신부인 장베르트랑 아리스티드(Jean Bertrand Aristide)가 대통령으로 당선되어 1991년 2월 취임하였으나, 9월 군부 쿠데타로 국외로 축출 당한다. 이후 아리스티드의 복귀와 군대해산, 프레발의 대통령 취임 등의 과정을 거쳐, 2000년 11월에 실시된 대선과 총선에서 아리스티드 대통령이 재당선되고 2001년 2월 취임한다. 하지만 조직적 선거부정 의혹과 2건의 쿠데타 미수사건 등을 둘러싸고 여야가 극한대립으로 치달으면서 아이티를 국

제적으로 고립시키고 국제사회의 재정지원도 동결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급기야 2004년 2월 5일 아리스티드 정권타도를 주장하며 아이티 북부에서 발생한 반정부 무장세력의 공세가 급속히 전국으로 확산되고, 미국, 프랑스 등 국제사회의 사임 압력에 직면하자 아리스티드 대통령은 2월 29일 사임 후 남아공으로 망명하게 된다(국방대학교, 2011: 14-15).

3) 지형 및 기상(T: Terrain & Weather)

아이티는 카리브해에 위치한 이스파놀라 섬의 서쪽 1/3을 차지하고 있으며, 면적은 27,750km²(대한민국의 1/4 크기)이다. 이 섬의 동쪽에 위치한 도미니카공화국은 아이티와 다른 민족과 언어, 역사를 가진 국가이다. 원주민인 타이노(Taino)의 말로 아이티(Ayiti)는 ‘산이 많은 땅’이라는 뜻이며, 그 이름처럼 국토의 3/4이 산이다. 아이티의 면적은 약 28,000km²이며, 남한면적의 약 1/3 크기이다. 가장자리가 말 편자 형태인 아이티는 두 개의 주된 반도가 북쪽과 남쪽에 각각 하나씩 있고, 반도 중간에는 고나브 섬이 있다. 아이티는 북쪽 반도를 포함한 북부, 중부, 그리고 남쪽 반도를 포함한 남부, 3개 지역으로 나뉜다. 북부는 북쪽의 산맥과 남쪽의 평야로 구성된다. 산맥의 가장 높은 정상인 몬드라 셀은 2,715m의 높이로 아이티에서 가장 높은 산봉우리이다. 아이티의 많은 강과 개울은 건기 때는 실개울로 천천히 흐르고, 우기 때에는 격렬한 물살이 되어 흐른다. 아이티의 가장 중요하고 긴 강은 아르띠보니프 강으로, 320km 길이의 강이고, 대동맥 역할을 하고 있으나, 이 강은 건기동안 그 깊이가 약 1미터이며, 우기에는 깊이가 3미터 이상으로 상승하여 자주 범람을 한다(국방대학교, 2011: 68-73).

국토의 상당부분이 산악지형으로 이루어진 아이티는 전형적인 열대 지역의 섬 국가로서의 기후를 띠고 있다. 그러나 여름에는 남동, 겨울에는 북동무역풍이 주로 불고, 우기인 4~5월과 8~10월에는 집중적인 강우가 이루어지며 이로 인해 도로와 하천 주변이 범람하는 원인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피해가 상당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우기를 제외한 기간의 경우 평균 35~40도에 이르는 고온이 지속되며 간헐적인 강우가 나타나지만 우기에 비해 그 피해는 적다고 할 수 있다.

4) 가용부대(T: Troops)

MINUSTAH는 1개의 본부와 4개 지역부대로 구분되었으며, 지역부대의 주요 임무는 파병된 각국 군이 위치하여 본부의 작전명령 및 통제로 임무를 수행하였다. 더불어 MINUSTAH의 최고 책임자는 유엔 사무총장의 특별대표(SRSG: Special Representative of the Secretary-General)로서, 수도인 포르토프랭스에 위치하면서 유엔의 정치적 대표자로서 각종 국제회의에 참석하고 아이티 정부와 중요 현안 문제를 논의하였다(국방부, 2010).

5) 가용시간(T: Time Available)

아이티 재건지원단의 파병목적은 대한민국이 유엔회원국으로서 2010년 1월 12일 발생한 지진으로 막대한 인명 및 재산피해를 입어 국가적 위기에 처한 아이티 공화국의 구조 및 재건복구 지원하는 것으로 가용시간이 매우 촉박하였다. 파병 경과를 살펴보면 2004년 4월 30일 유엔안보리 결의(1542호)에 의해 국제연합 아이티 안정화 지원단(MINUSTAH)이 설치되었다. 2010년 1월 12일 아이티 공화국에 강진이 발생하자 유엔에서 안보리 결의1908호를 채택하여 군인 2,000여명과 경찰 1,500명 증원을 결정하였으며 한국에도 파병을 요청하였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10년 1월 29일부터 2월 4일까지 정부 합동실사단을 파병하여 해외파병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확인점검하고 파병여부를 판단하였다(육군본부, 2010). 정부에서는 파병이 필요하다는 결정과 함께 국회에 파병요청을 하였으며, 국회는 2010년 2월27일 아이티 재건지원단(단비부대) 파병을 동의하였다(의안번호 7543, 2010. 2. 3).

6) 민간요소(C: Civil Affairs)

아이티의 근대 역사에서 알 수 있듯이 독립 이후 계속되는 국정의 불안은 전반적인 사회통제에 대한 취약성을 드러냈으며 그 과정에서 해체된 군으로 인해 더욱 증가하였고 부족한 경찰병력을 통해 치안을 유지하는 것은 사실상 제한되었다(국방대학교, 2011: 30-31). 여기에 천재지변인 지진으로 인해 그 피해와 혼란이 가중되어 자체적인 경찰병력 수준으로는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게 된 것이다. 또한 아이티는 1일 2달러 정도의 수입을 가지고 생활하는 인구가 약 60% 수준이며 전체 인구의 약 80%가 실직 상태로 경제활동이 없는 인구가 대부분으로 급식, 의료혜택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유아, 여성에 대한 납치 및 금품요구 사례가 증가하였다. 더불어 각종 하천에 대한 정비 사업의 미흡으로 적은 강우량에도 범람하거나, 하수시설이 미흡하여 각종 오·폐기물로 인한 수자원의 오염과 각종 질병이 만연하게 되었다(국방대학교, 2011: 19-28). 비록 군과 각종 민간기구의 인도주의적 지원이 지속되고 있으나, 아이티 국민의 자체적인 극복의지와 자립심의 약화를 초래하여 경제발전과 지진의 피해복구 속도는 늦어지는 폐해가 증가하였다. 이에 아이티 정부는 유아, 임신여성 등을 제외한 인원에 대한 민사지원 중지를 요청한바 있으나, 오히려 정부와 MINUSTAH 및 지원국들에 대한 반감증대로 시위 등 폭력적 수준으로 발전하는 경향을 보이기도 하였다.

2. 아이티 재건지원단 활동 및 성과 분석

1) 해외파병 결정과정 및 준비과정

해외재난 구호지원을 위한 파병결정 과정과 준비과정에 대한 성공요인 분석을 해외 파병부대 성공요인 분석 평가의 틀(METT+TC)을 토대로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임무(Mission)면에서 유엔에서 부여한 임무는 아이티 공화국의 재해복구 및 재건지원을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기본임무로부터 크게 3가지의 과업을 연출하였다. 첫째, 아이티재건지원을 위한 공병지원, 둘째 현지인 대상 의료지원, 셋째 인도주의 활동지원 이다(합참 아이티재건단 업무보고, 2010. 2). 특히 공병지원을 위해 공병 부대를 중심으로 도자, 덤프, 구레이다 등 복구 및 재건지원에 필요한 장비와 병력위주로 편성하였다. 또한 물이 부족하여 급수 및 위생상태가 불량하다고 판단되어 심정 굴착장비를 보유한 부대를 추가하였으며, 더불어 부대자체 진료와 지역주민 의료지원을 위해 의료지원부대도 편성하였다. 한편 부여된 임무수행을 위한 교육훈련도 건축물 잔해제거, 도로 및 교량 복구, 공공시설 건설 등 임무와 부합되게 실시하였다(합동참모본부, 2011: 2).

둘째, 적 상황(Enemy)은 파병국가에 대한 현지 상황판단이 중요하였다. 아이티는 서반구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이며, 실업률이 80%에 도달한 수준이다(국방부, 2010). 그러므로 강도, 절도, 폭력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등 전반적인 치안수준이 매우 열악한 상태이다. 이러한 현지 상황은 아이티 재건지원단의 주둔지 활동간, 주민 접촉간, 현지 구호지원 활동간 폭력행위나 테러를 당할 수도 있을 것으로 판단되었다. 따라서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 및 첩보 수집을 위한 인력과 방호를 위한 인력을 편성하였다. 또한, 주민들과의 친화를 위한 민사작전 계획을 구체화 하였으며, 한국과 한국군을 잘 알릴 수 있는 홍보활동 계획도 준비하였다.

셋째, 지형 및 기상(Terrain and Weather)면에서 아이티는 산이 많은 나라로 국토의 70% 이상이 산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로 인해 도로의 사정이 매우 열악하였다. 또한 아르띠보니뜨 강은 중부 국경 지역에서 시작하여 북부지역까지 320km에 이르는 긴 강이며 이 강을 포함하여 많은 강과 개울이 형성되어 있다(국방대학교, 2011: 16-18). 강과 개울은 건기동안에는 실개울로 천천히 흐르나 우기 때는 격렬한 물살이 흐르고, 심할 경우에는 범람하여 도로를 파괴하고, 삼림과 농경지를 침식시킨다. 또한 국민경제의 피폐로 인한 무분별한 삼림 벌목 등으로 인한 환경 훼손으로 인해 이러한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실정이다. 기상은 전형적인 열대지역 도서국가로서 여름에는 남풍 겨울에는 북동무역풍이며, 우기인 4~5월과 8~10월에 집중적인 강우로 인해 도로와 하천 주변이 범람하는 원인을 제공한다. 그러나 우기를 제외한 기간의 경우 평균 35~40도에 이르는 고온이 지속되어 야외 활동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이와 같은 지형과 기상의 특징을 고려하여 도로 복구 및 토목·건축 부대를 편성 하였으며, 원활한 급수 및 급식 지원을 위해 작전지원대를 추가로 편성하였다. 또한 우기시 장기간 폭우 등에 대비하여 30일 이상의 예비 식량을 준비하였으며, 수질 정화기 등을 휴대하여 비교적 청정한 급수를 하도록 준비 하였다. 우기를 제외한 기간의 고온에 대비해서는 부대활동 및 장비 운용시간을 탄력적으로 적용 할 수 있도록 부대활동 세부계획을 수립하였다.

넷째, 가용부대(Troops)면에서는 현지의 임무인 도로 복구 및 건설, 폐자재 처리, 심정 개발, 의료지원 등을 고려하여 이 분야에서 잘 훈련되어 준비된 단일공병부대를 파병하기로 결정하였다. 특히 단일공병부대는 도로복구 및 건설 분야뿐만 아니라 심정개발 능력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추가 교육훈련 소요도 없었으며, 파병 즉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이점이 있었다. 또한, 현지의 내정과 치안 상태가

불안한 점을 고려하여 특별히 해병대 1개 중대를 편성하여 주둔지 활동 및 현장 활동간 운용 하도록 하였다.

다섯째, 가용시간(Time available)은 2010년 1월 12일 아이티 대지진 발생 후 일주일이 경과한 1월 19일에 유엔 안보리는 긴급결의 1908호를 통해 군 2,000명과 경찰 1,500명의 증파를 결정하였다. 동시에 UN은 대한민국에도 아이티 복구를 위한 병력 파병을 요청하였다. 대한민국에서는 신속한 구호 지원을 위해 조기 파병을 결정하였다. 따라서 해외파병에 다른 절차를 간소화 하고 의사결정과 업무처리를 신속히 하였다. 파병요청 3일 만인 1월 22일에 파병 준비명령을 작성하여 하달하고, 일주일 후인 29일에 파병부대 지휘관 및 참모를 선발하였다. 또한 29일부터 2월 4일까지 정부합동실사단³⁾을 파병하였다. 2월 6일 부터는 파병요원을 소집하여 현지정세, 활동요령, 주민접촉요령 등 핵심과제 위주로 교육을 실시하였다. 이어서 2월10일 아이티 파병안이 국회에서 통과하자, 선발대를 파병하고 17일에는 환송식을 국방부장관 주관으로 실시하였다. 2월 27일에는 파병 요청 2주 만에 전세기 편으로 본대를 전개하였으며, 3월 4일부터 현지주민에게 구호물자 분배를 시작으로 임무를 개시하였다(합동참모본부, 2011: 1-3).

여섯째, 민간요소(Civil Affairs)로써 현지인의 마음을 얻는 지원활동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인도적 재건지원활동을 먼저 고려하였다. 즉, 학교, 병원, 도로 등 순으로 재건지원활동을 추진하고 심정개발을 통해 지역주민에게 깨끗한 식수를 제공하며, 전염병 예방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였다. 또한 적극적인 홍보활동으로 현지 언론을 적극 활용하는 한편 주민과의 접촉을 다양화 하여 대민지원 성과를 크게 홍보하였다. 더불어 정부와 국내 NGO등과 연계한 장기적인 아이티 지원 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할 것을 계획하였다(국방부 아이티 재건지원단 업무보고, 2010. 2). 이와 같이 해외파병 준비과정의 성공요인 분석을 종합해 보면 <표 1>과 같다.

<표 1> 해외파병 준비과정 성공요인 분석

구분	요인분석 내용	성공요인
Mission (임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해복구 및 재건지원 임무 심정개발/의료지원을 추가임무로 설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병부대위주 편성 도자, 덤프, 구레이다 등 장비편성 재해복구 및 재건지원관련 교육훈련 심정개발 부대, 의료지원부대 추가편성
Enemy (상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반구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실업률 80%) 내정 및 치안 불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보 및 첩보 수집활동 계획 방호인력 강화(해병대 편성) 민사작전계획 구체화 홍보활동 준비

<표 1> 해외파병 준비과정 성공요인 분석(계속)

3) 정부합동실사단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국방부 평화협력국장, 합동참모부, 육군본부 관계관등 9명으로 편성하여 아이티 지진현장을 방문하여 현지상황을 확인하고, 준비요소를 점검하였다.

구분	요인분석 내용	성공요인
Terrain and Weather (지형 및 기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토의 70%산악 • 우기시 병참으로 기간시설 파괴 및 도로, 농경지 침식 • 건기시 35~40도의 고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긴급도로 복구 및 토목, 건축부대 편성 • 급수, 급식을 위한 작전지원대 편성 • 고온에 대비한 장비활동 계획 수립
Troops (가용부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로복구 및 건설, 폐자재 처리 • 심정개발 및 의료지원 필요 • 강력한 능력을 가진 부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로 복구 및 심정개발의 경험이 있는 단일 부대로 편성 • 해병대 1개 중대로 경계부대 편성
Time available (가용시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속한 재난 복구를 위해 조기파병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파병 절차 간소화 • 국회동의 등 의사결정 신속화 • 교육훈련 기간단축, 핵심과목 위주 실시
Civil Affairs (민간요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지 활동간 장비의 안전에 우선 • 현지인의 마음을 얻는 지원활동 필요 • 구호지원활동 및 대한민국의 위상 홍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건지원 활동시 인도적 지원 우선 실시 • 심정개발로 깨끗한 식수 제공 준비 • 전염병 예방활동 준비 • 대민지원 계획 구체화

1) 해외재난 구호지원 활동결과

아이티 재건지원단의 해외재난 구호지원 활동결과를 METT + TC의 6가지 요소가 포함된 분석틀을 사용하여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임무(Mission)면에서 아이티 파병 부대의 임무는 여러 가지가 부여되었지만, 가장 중요한 임무가 아이티 구호 지원 및 대지진 피해복구 및 재건지원이다. 이와 병행하여 민사작전과 군사외교 활동을 실시하였으며, 주요 활동은 <표 2>와 같이 유엔과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부여된 피해복구 및 재건지원 임무 199건을 단 한건의 안전사고도 없이 완벽히 수행하였다(합참, 아이티재건지원단 1·2진 귀국보고, 2011: 251).

<표 2> 아이티 재건 지원단 주요활동

재건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로 복구/제방 보수: 32개 소, 부지 정리: 47개소 • 건물 잔해 제거: 14개소, 징정 개발: 18개소 • 하천 준설: 17회
민사작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지인 의료지원: 52,600명, 난민촌/고아원/학교 방역 지원: 주 2회 • 난민촌 지원: 39회, 고아원 지원: 100회 • 태권도 교육: 137회, 중장비 기술교실 운영: 36회
군사외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타국 파병부대와 군사교류 및 협력 - 타국 부대 초청 및 방문, 연합 공병작전 등

둘째, 현지의 각종 어려운 상황(Enemy)을 잘 극복했다는 점이다. 즉, 2010년 2월 상하원 선거, 11월 대통령 선거, 지진 등으로 치안부재 상황이 계속 되었고, 10월 중순에 콜레라가 발생되어 2,400여명이 사망하는 등 재건지원단 활동에 매우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지역주민들을 감동시키는 효과위주의 민사작전을 전개하여 치안부재의 상황을 극복하였다. 민사작전과 병행하여 부대인근 난민촌 어린이들에게 학용품과 과자를 나누어 주고 한국과 한국군을 홍보하였다.

또한 콜레라 예방활동을 하면서 현지인을 대상으로 11,895명을 진료하는 적극적인 의료지원을 함으로써 '레오간의 수호천사' 라는 별칭을 수여받는 등 현지인들로 부터 찬사를 받았다(합참, 아이티재건지원단 귀국보고, 2011: 258).

특히 민사작전은 파병초기에는 주둔지 주변 난민촌 어린이를 대상으로 과자류와 생필품 등을 분배 하였으나, 공사임무가 점점 확대되면서 204번 도로 일대 난민촌까지 과자류를 포함하여 칫솔, 치약, 담요 등 생필품을 분배하였다. 그러나 MINUSTAH에서 4월 30일부로 식량분배 중단을 지시함에 따라 더 이상의 식량 분배는 할 수 없었다. 따라서 레오간 일대 잔해제거를 해준 학교를 대상으로 노트, 연필, 자 등 학용품과 한국으로부터 지원받은 사탕이나 비스킷을 분배하였다. MINUSTAH 에서는 난민촌, 학교 고아원을 대상으로 식량 외에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운동장, 쉼터, 난민촌 리모델링, 화장실 건설, 의료지원 등을 지원해줄 것을 권장 하였으며, 부대의 역량을 고려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시행 하였다(합참, 아이티재건지원단 1·2진 귀국보고, 2011: 724).

민사작전 예산은 합참으로부터 5만불을 배정받아 사용하였으며, 아이티의 열악한 유통구조로 인해 대량 구매가 요구되는 민사작전용 물품을 확보하는데 큰 제한사항이 있었다. 노트, 연필 지우개 등 기본적인 학용품조차도 동일 모델로 100개 이상 구매 하는데 약 2주일 이상 소요되었고, 판매처 확인을 위해 며칠씩 시장조사를 해야 했다(국방대학교, 2011: 184-185). 게다가 상점마다 물품을 확보해서 제공한다는 보장도 없었다. 기타 학생용 가방이나 모자 등을 대량 구매하는 것은 아이티에서는 불가능 했고 상품의 질도 매우 낮았으며 가격은 한국보다 비쌌다. 따라서 배정된 예산의 효과적 사용과 담당자의 불필요한 시간낭비 예방, 원활한 민사작전 등을 위해 학생용 가방, 노트, 연필, 볼펜, 크레파스 등 학용품과, 양말, 티셔츠, 모자 등 다양한 지원품 등을 한국에서 사전 준비해 오는 것이 효과적이었 다(국방대학교, 2011: 98-99).

민사작전시 한국의 발전상과 긍정적인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도록 초등학교, 고아원, 난민촌 지도자 등을 대상으로 한국 및 부대소개 영상, 책자를 활용하였다. 이를 통해 단비부대의 위상을 높이고 나아가 친화화를 달성하는데 큰 성과가 있었다. 10월말부터 아이티 전 지역은 콜레라 확산으로 수많은 난민들이 사망하는 등 지진피해보다 더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지만 기본적인 예방대책이 미흡하여 부대에서 인근지역에 콜레라 관련 팜플렛 분배 및 예방교육, 비누분배 등을 통해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였다(합참, 아이티재건지원단 1·2진 귀국보고, 2011: 282). 지진이후 의료 및 식량지원을 위해 많은 한국 NGO가 아이티로 파병되었지만 단독으로 지원하는 데 애로사항이 많아 단비부대와 공동으로 민사작전을 실시함으로써 효과를 극대화 하였다.

셋째, 지형 및 기상(Terrain and Weather)으로 아이티는 산이 많은 나라로 국토의 70%가 산악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특히 재건지원단이 위치했던 서부 레오간 지역은 도로가 제한되고, 우기인 4~5월과 8~10월에는 집중적인 강우와 허리케인으로 인해 시설물 붕괴와 하천이 범람하여 재건지원 활동에 제한을 받았다. 최고기온도 40도에 달하기 때문에 장병들의 활동을 위축시켰다. 이러한 불리한 점을 극복하기 위해 긴급복구 공병 3개 팀을 운용하여 유실된 도로와 제방을 우선 복구하여 재건지원 활동이

계속 가능하도록 조치하였다. 또한, 주간의 휴서기를 회피하여 이른 아침과 오후 늦은 시간부터 활동을 하도록 조정함으로써 공사가 계획대로 진행도록 하였다. 레오간 시내는 붐괴된 건물들에서 발생한 잔해로 통행에 장애가 유발되어 기동성이 우수한 타이어 굴삭기와 15톤 덤프 차량을 투입하여 제거하였다. 그러나 공사가 시내에서 실시되어 차량 및 인원들의 안전통제가 각별히 요구되었다. 204번 도로는 총 38km의 장거리 복구구간과 좋지 않은 도로 상태와 많은 토사량 및 높고 가파른 법면 등으로 인하여 공사간 많은 어려움과 장비 매몰, 추락사고 등의 위험이 있는 공사였다(아이티재건지원단 Tasking Order 837, 204번 도로공사, 2010. 7. 28). 따라서 우수한 장비병과 양호한 장비 및 덤프차량을 운용하고 많은 토사량을 짧은 시간에 처리할 수 있는 페이로다가 유용하게 운용되었다.

넷째, 가용부대와 가용능력(Troops)면에서 아이티에 파병된 공병부대의 병력은 비록 240여명 밖에 안됐지만 굴삭기, 15톤 덤프, 페이로다, 도자, 시추기 등 건설장비 위주로 편성하였고, 레오간, 포트프랭스 등 아이티 서쪽 지역에서 잔해처리, 도로복구 및 건설 등에 투입하였다. 또한 심정 굴착장비를 휴대하여 심정을 개발함으로써 식수문제를 해결해 주었으며 의료지원단을 편성하여 현지인들의 진료를 담당하여 재건지원, 식수지원, 의료지원 등의 3가지 과업을 동시에 수행 하였다. 더불어 군사외교 활동도 활발히 전개하였는데, 아이티 재건지원단이 파병된 MINUSTAH에는 19개국에서 파병된 7,700여명의 군인과, 브라질 등 48개국에서 파병된 경찰 3,542명, 국제 민간요원 557명, 지역 민간요원 1,335명, UN요원 224명 등이 다양하게 구성되어 활동 하였으므로 군사외교도 또한 중요한 임무였다(합참, 아이티재건지원단 1·2진 귀국보고, 2011: 263). 이에 단비부대는 파병 초기부터 타 파병국과 협조 및 교류를 활성화 하였고, 유엔 및 MINUSTAH 주요인사는 물론 외국인 NGO단체, 종교단체 등 3천여 명을 대상으로 초청행사를 하였다. 특히 2010년 3월 15일에는 반기문 UN 사무총장이 MINUSTAH 회의에 참석하여 한국과 한국군의 위상을 확립토록 지원함으로써, 군사외교에도 더욱 탄력을 받게 되었다. 또한 군사외교를 위해 UN 메달과 공로인정서 수상 등 메달 메달 퍼레이드 행사시에 외국군 장병들을 초청하여 태권도 등 한국문화체험과 한국 전통음식 등을 제공하였다(국방부, 2011: 215). 이런 체험활동은 한국군의 우수성과 한국 문화를 타국 장병들에게 알리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

한편 일본, 중국, 브라질 등 인접지역에 배치된 부대와는 상호 초청 및 방문행사와 각종 장비 지원 등으로 한국군의 위상을 높였다. 일본과는 교류 활성화 차원에서 공동잔해 제거 작업, 하천준설 작업을 성공적으로 마쳤으며, MINUSTAH 사령관으로부터 타국군의 본보기가 되었다는 찬사를 받기도 했다(국방부, 2011: 215).

다섯째, 가용시간(Time available)면에서 25만 여명의 사상자와 엄청난 재산피해를 하루라도 빨리 전개하여 효과적인 구호지원 및 복구활동이 요구되었다. 따라서 2010년 1월 19일의 UN 안보리 결의 이후, 1개월8일 만인 2010년 2월 27일에 전개하여 3월 7일부터 임무를 개시하는 신속함을 보였다. 통상의 파병인 경우 현지정부의 파병 요청으로부터 UN 지원결의를 걸쳐 6개월여가 소요되는데 비해 아이티 재건지원단의 경우는 통상의 경우보다 5개월 정도 빨리 파병한 것이다. 또한 도착 후 일주일 만에 재건지원 임무에 투입할 정도로 신속히 임무를 수행 하였다. 아울러 임무에 투입하기 위해서 선발

대 및 본대로 구분하여 인력을 항공기로 우선 이동 시켰으며, 복구 및 구호지원에 필요한 장비는 국회동의 이전에 민간 화물 선박에 적재하여 우선 이동시켰다. 인력이 도착한 후에는 장비 도착 전까지 구호품 분배, 의료지원 등 민사작전 위주로 실시하면서, 공사 및 구호할 지역에 대한 사전 정찰활동으로 가용시간을 확보하였다.

여섯째, 민간요소(Civil affairs)면에서 아이티는 아프리카에서 끌려온 노예들이 봉기를 하여 1884년 1월 1일 프랑스로부터 중남미 최초의 독립국이나 최빈국이라는 점이다. 독립시에 프랑스로부터 독립국 인정을 받는 조건으로 자국능력으로 지불이 가능할 것 같지 않은 배상금 1억 5천만불(당시 아이티 GDP의 10배)을 약속하게 되고, 이는 아이티가 오늘날 최빈국 처지를 벗어나지 못하게 한 원인중의 하나로 거론되고 있다. 현재 서반구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로써 전체인구의 80%가 하루 2달러 미만의 소득으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으며, 2010년 지진으로 인해 실직자가 늘어 평균 실업률이 80% 가까이 육박하였다. 또한 지진으로 25만여 명의 사상자는 물론 수많은 이재민이 발생하였고, 위생상태도 최악의 상태여서 10월 19일 아티보니트강 일대에서 최초 콜레라 발생이후 전국적으로 감염이 확산된 상황이었다(아이티재건지원단 정찰보고 725, 2010. 10. 5). 학교시설도 대부분 파괴되어 어린이들에 대한 교육도 불가능한 상태였다. 따라서 단비부대에서는 공공시설물 및 도로 등 국가기간 시설 정비에 추가하여, 지역주민의 거주시설 복구지원, 학교, 고아원, 요양원 복구지원, 의무지원 및 식수지원과 학생들에게 학용품 지원하는 정책 등을 통해 주민들의 고통을 감소시켜주었다. 이와 같이 한국군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갖게 함으로써 재건지원 임무의 효과를 높이고 한국을 알리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이와 같이 METT+TC의 요소에 의한 전개이후 활동의 성공요인을 분석결과는 <표 3>과 같다.

<표 3> 해외재난 구호지원 활동결과 분석

구분	요인분석 내용	활동결과
Mission (임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진 피해복구 및 재건/구호지원 안전사고 없이 임무 수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물 잔해제거, 도로복구, 하천준설, 심정개발, 의료진료 및 방역 등 199건 완료 민사작전, 군사외교 병행실시
Enemy (상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정불안 계속 (상하원 선거, 대통령선거) 차안부재, 콜레라 발생(10월 중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민 친화를 위한 다양한 활동(학용품, 과자 제공) 현지인 의료지원 11,895명 콜레라 예방활동, 식수제공 한국 및 부대소개(영상, 책자)
Troops (가용부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한된 규모의 편성에서 재건지원, 심정개발 및 의료지원 부대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240명의 제한된 인원으로 피해복구 및 재건지원 뿐만아니라 민사작전, 군사외교 활동을 전개
Terrain and Weather (지형 및 기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70%이상 산악지형 주요 기간도로 공공시설 파괴 최고기온 40℃의 혹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긴급복구 공병 3개팀을 운영 유실된 도로와 제방 우선복구 혹서기 회피토록 활동 조정

<표 3> 해외재난 구호지원 활동결과 분석(계속)

구분	요인분석 내용	활동결과
Time available (가용시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속한 파병 · 조기 구호/복구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물전세기 이용 인력전개 · 전세선박이용 장비수용
Civil Affairs (민간요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균 80%의 실업률 · 집없는 이재민 다수/학교 파괴 · 콜레라 감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주민 거주시설 복구지원 · 학교, 고아원, 요양원 우선복구 · 콜레라 예방교육, 식수지원

I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결과 해외재난 구호지원활동의 성공요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부여된 임무를 철저히 분석하여 이에 대비한 부대 및 인원과 장비의 편성과 충분한 교육훈련이었다. 둘째, 현지 상황에 대한 정보 및 첩보수집과 방호인력의 강화와 민사작전과 홍보계획을 철저히 준비한 것이다. 셋째, 지형 및 기상 에 따른 도로복구와 토목 및 건축이 가능한 기능부대의 편성과 군수지원 및 장비활동계획을 수립하였다. 넷째, 가용부대는 현지의 상황과 요구에 부응한 도로복구 및 심정개발의 경험이 있는 단일부대로 편성하였고, 특히 해병 1개 중대로 경계부대를 편성한 것이다. 다섯째, 가용시간은 신속한 재난복구를 위해 조기파병을 요구하였으며, 이에 대해 파병절차를 간소화하고 국회동의 등 의사결정이 빠르게 진행되었다. 더불어 교육훈련도 핵심과목 위주로 기간을 단축하였다. 여섯째, 민간요소는 재건지원 활동 간 인도적 지원을 우선하고 전염병 예방활동 등 대민지원을 적극적으로 전개하여 이들에게 진정한 마음으로 다가감으로써 깊은 인상을 안겨주었다.

결론적으로 해외재난 구호지원 활동결과 성공요인은 첫째, 파병에 대한 정부·국회의 신속한 의사 결정과 파병부대의 현지 상황과 특성에 맞는 통합적 지원이었다. 둘째, 현지 여건과 주민들의 성향을 고려한 효과적인 민사작전의 전개였다. 셋째, 현지에 파병되어온 외국군과의 다양한 교류활동과 협력이었다. 그러나 파병 후 조기 임무수행을 위한 사전 충분한 준비, 현지의 특성에 맞는 인력과 장비의 편성 등의 보완이 요구되었다.

최근 지구 온난화에 따른 기상이변으로 대지진, 쓰나미, 폭설, 집중호우 등 대규모 자연 재난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대규모 자연 재난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어 각 국가에서는 매우 큰 위기로 받아들이고 있으며, 전 국가 차원의 조직적인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이를 위해 국제적으로는 UN의 자연재해 감소를 위한 국제설립기구(ISDR)와 평화유지국(DPK)의 협조체제를 더욱 강화해야 할 것이다. 아이티 지진과 같이 대규모 재난지역에 대해서는 특별히 지원 및 협조 체제를 유지하여 세계의 각 국가에서 신속히 지원토록 함으로써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우리나라도 국력의 규모와 수준에 맞게 외국의 대규모 재해·재난 발생 시 인력과 장비를 조기에 투입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국회의 의사결정을 신속히 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 피해복구 및 지원을 위한 인력 및 장비 편성, 운용 등에 관한 교리를 발전시키고 인력과 장비를 사전에 준

비하고 교육훈련을 강화함으로써 효과적인 임무수행이 가능토록 해야 한다.

이번 연구결과를 토대로 해외재난 구호지원 파병업무의 발전방안 및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해외재난 구호지원의 신속한 파병을 위한 준비절차의 매뉴얼이 필요하다. 아이티 재건지원단의 경우 현지 국가의 파병 요청 후 유엔안보리 결의를 거쳐 우리정부의 파병절차를 걸쳐 약 1개월 9일 만에 파병을 할 수 있었으나, UN이나 국제사회에서는 각국의 파병부대가 신속하게 현지 국가에서 임무를 수행해 주기를 원하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우리정부의 경우 파병요청으로 부터 파병까지 대체로 평균 4~6개월 정도가 소요되었다. 파병의 지연은 근본적으로 파병에 대한 명분이라든가 국회동의 통과절차와 정부의 최종파병 결정까지 소요되는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파병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제대로 형성되지 못한 점과 여야갈등으로 인한 파병 동의안 처리가 지연된 점을 상기해야 한다. 더불어 국회 동의안 통과 이후 실질적인 파병을 하기 까지 준비과정도 많은 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파병기간 단축을 위한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

둘째, 해외재난 구호지원 파병성과의 극대화를 위해 파병업무의 일원화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현재 파병업무의 대부분은 국방부에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보완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국방부 주관 하에 외교부등 유관부처가 참가하는 새로운 형태의 조직이나 특별 협의회를 통해 국방부와 외교부등 관계부처와 긴밀하게 협조하여 통합적으로 추진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셋째, 해외재난 구호지원 파병은 소프트파워의 중요한 축이라는 인식확산이 필요하다. 해외 파병을 21세기 글로벌 차원에서 군사외교를 포함한 소프트 파워로 대변되는 공공외교의 외연 구축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 더불어 현지 민사작전을 통해 의료지원활동을 비롯해 태권도 전수, 한국어 전수, 한국의 고유문화 전파와 한류 확산 현지 주민들과 소통을 통해 많은 호감을 얻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원조를 받던 국가에서 원조를 제공하는 국가로 전환 되었듯이 평화와 재건발전 경험전수를 통해 현지인들에게 ‘하면 된다’는 동기의식 부여에도 많은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넷째, 해외 파병지역의 상황과 기상 및 지형에 맞게 인력과 장비를 편성해야 한다는 점이다. 아이티의 경우 70% 이상이 산으로 형성된 전형적인 열대지역의 삼림국가이며, 우기에는 도로와 하천 주변이 범람하고, 식수 부족으로 인한 위생상태가 불량하여 콜레라가 발생하는 지역이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해외재난 구호지원을 위한 병력 및 장비의 편성과 물자지원 등이 매뉴얼화 되어야 한다. 그래야만 다른 지역에서 상황이 발생하여도 즉각 준비 및 조치가 가능할 것이다.

다섯째, 현지에서 정비소요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장비를 편성해야 한다. 단비부대는 공병 위주의 재건지원부대로서 많은 공병 장비를 보유하고 있었다. 이러한 장비들은 가능하면 동종으로 구비하여 정비소요를 최소화해야 한다. 예를 들어 브라질이 보유하고 있는 발전기의 경우는 중국산을 보유하고 있어 다양한 수리부속을 운영용으로 보유해야 하며, 정비 체계도 복잡해지고 자연히 정비효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문제가 발생되었다. 따라서 편성부대의 특성에 맞게 정비소요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가능한 한 동일 국가에서 동일 년도에 생산한 장비를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참고문헌

국방대학교. 2011. 단비부대 1·2진 귀국보고서(아이티 재건지원단). 서울: 국방대학교 PKO 센터.
 국방대학교. 2012. UN PKO 역사와 교훈. 서울: 국방대학교 PKO 센터.
 국방부. 2011. 지구촌에 남긴 평화의 발자국.
 권해수. 1992. 사회운동과 공공정책의 역동적 관계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김열수. 2006. 해외파병 정책의 변수와 협상전략: 전투병 파병을 중심으로. 전략연구. 13(1): 125-151.
 김장흠. 2010. 한국군 해외파병 정책 결정과정에 관한 연구: 통합적 모형의 개발 및 적용을 중심으로. 한성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김정두. 2011. 한국 군사외교정책 결정요인에 관한 비교연구: 해외파병부대 사례를 중심으로. 경남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김해동, 유훈. 2005. 정책형성론.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계운봉. 2012. 한국의 해외파병에 나타난 국가이익구조에 관한 연구. 경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노충섭. 2011. 한국군의 해외파병활동 및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경기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안전행정부. 2012. 재해 재난의 개념. 서울: 안전행정부.
 우정희. 2012. 해외파병군인의 외상후 스트레스장애(PTSD)에 관한 연구. 한국테러학회보 5(2): 72-103.
 유영옥. 2005. 행정학. 서울: 세경사.
 육군본부. 2003. 지휘관 및 참모업무.
 육군본부. 2010. 아이티 군 현지실사단 확인결과. 육군본부 내부자료.
 이윤주. 2009. 해외파병 결정에 관한 경험적 연구: 전문가 집단의 의식을 중심으로. 충북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이연미, 김영희. 2010. 해외파병 부대원들을 위한 정신건강 증진 프로그램개발에 관한 연구. 군진간호 연구. 28(1): 70-83.
 이영석. 2011. 평화유지군의 민군관계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주요 사례를 중심으로. 통일전략. 11(3): 211-242.
 이재은. 2005. 국가위기관리의 학문적 체계화의 의의와 필요성. 한국위기관리논집. 1(1): 1-13.
 정도생. 2006. 한국의 해외파병정책 결정과정에 관한 연구: 소말리아, 앙골라, 동티모르 PKO사례를 중심으로. 단국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정찬권. 2012. 국가위기관리훈련. 위기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과정. 국립방재연구원.
 정효현. 2003. 해외파병 부대원의 스트레스 변화에 관한 연구: 상륙부대 제7진을 중심으로. 국방연구. 46(1): 93-126.
 조연행. 2013. 한국군 국제평화유지활동에 관한 연구: 해외파병 정책결정과정과 성과 분석을 중심으로. 건국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조영갑. 2000. 한국위기관리론. 서울: 팔복원.
 조영갑. 2011. 국가안보학. 서울: 선학사.
 최우. 2008. 해외파병 한국군의 민군작전 효율성 제고 방향과 과제: 미군의 대 이라크 민군작전 교훈을 중심으로. 충남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한세진. 2013. 증례보고: 해외파병 구강악안면외과 전문의의 역할. 대한악안면성형재건외과학회지 35(2): 136-141.
 한태근. 2010. 해외파병장병의 진장 및 직무스트레스와 스트레스 반응에 대한 연구. 명지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합동참모본부. 2010. 합동·연합작전 군사용어사전.
 합동참모본부. 2011. 아이티 재건지원단 파병일지. 합참 해외파병과 내부자료.
 Robert, T. Nakamura & Frank Smallwood. 1980. *The Politics of Policy Implementation*. New York: st, Martin's press.

楊澈鎬: 동국대학교에서 안보행정학 석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합참작전처장 및 제3공수특전여단장, 교육사령부 훈련처장을 거쳐 현재 청주대학교 군사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관심 분야는 국가위기관리, 국방정책 및 리더십 등이다(y0300@hanmail.net).

朴孝善: 중앙대학교에서 HRD정책학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현재 청주대학교 군사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주요 저서와 논문으로는 “한국군의 평생교육”, “군 인적자원개발 정책결정과정에 관한 연구”, “군 복무경험의 평가인정 방안” 등이 있으며, 관심 분야는 군 인적자원개발, 평생교육, 전직지원교육 등이다(phs6166@cju.ac.kr).

투 고 일: 2013년 09월 10일
 수 정 일: 2013년 09월 25일
 게재확정일: 2013년 09월 28일

The Study for Success Factors of Global Disaster Support Activities

– The Dispatch Case of R.O.K. Engineering Company –

Chul Ho Yang, Hyo Sun Park

Recent earthquake in Haiti, Japan, Turkey, and China, caused a huge property damage and the number of casualties. International community developed the joint efforts to support for disaster recovery and reconstruction including dispatching rescue teams, and sending relief supplies such as medical supplies, and food. According to the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 the Republic of Korea dispatched the reconstruction support group, Danbi, to support both public recovery and civil reconstruction including road and building restoration, medical and water supply support. This study is aimed to contribute to the support services of overseas dispatch by analyzing the case and deriving the success factors of Danbi. For this, activities of the first and second Danbi from Feb 6 to Dec 31 in 2010, were analyzed by using frameworks for success factors of overseas dispatch(METT+TC). As a result of the analysis, Haiti reconstruction support group(Danbi) was Republic of Korea's first international dispatch for large-scale disaster and the mission was successfully accomplished. The first success factor was a rapid decision of the government and Congress, and the integrated supports according to the characteristics of the local situation. Second was the development of effective civil operations which considered the conditions of the local residents and the tendency. Third was a wide range of exchanges and cooperations with dispatched foreign troops. However, sufficient preparation for early missions and formation of personnel and equipment based on the local characteristics were required. Thus, if additional improvements are made based on the case of Haiti reconstruction support group, Danbi, it is considered that the successful mission could afford when foreign large-scale disaster occurs.

Key words: reconstruction support group, overseas dispatch(METT+TC), civil operations, large-scale disaster